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국내시청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崔 明** · 康賢斗*** · 宋相現**** · 李忠雄*****

<목 차>	
I. 머리말	3.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프로그램별 시청률과 만족도
1. 연구 문제	4.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프로그램 내용 평가
2. 연구의 방법	5.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유입에 대한 인식
II. 일반국민의 일본 직접위성 방송 수용실태와 인식	6.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유입에 대한 대응 방안
III. 서울·부산지역 일본 직접 위성방송 수신자의 수용실태 와 인식	V. 맷음말
1.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수 신설비 보급 실태	1. 연구 결과 요약
2.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시 청 행태	2. 전파침입에 대한 대응

I. 머리말

1. 연구 문제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국제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 중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직접 위성방송(direct broadcasting satellite)과 관련된 전파 침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직접위성방송이란 적도상공의 정지궤도상에 떠 있는 방송위성으로부터 발

* 본 연구는 체신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국내시청행태에 관한 조사연구」(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를 참고하라.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사되는 전파를 지상의 중계장치를 거치지 않고 각 가정에서 개별 또는 공동 수신하도록 해주는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오늘날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직접위성방송은 경제성, 난시청 해소 및 대량통신 가능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간의 위성궤도 및 주파수 할당 문제와 주변국의 전파침입(spill over)이라는 심각한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전파침입은 우주국에서 송출되는 직접위성방송의 전파가 국경을 넘어 타국가로 침입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전파침입을 당하는 주변국들은 자신의 영토에 침입하는 타국의 전파에 대해 어떠한 통제력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국제적 마찰이 계속되어 왔다.

직접위성방송에 의한 전파침입은 이질적 텔레비전 전파의 침입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는 것으로서, 그 잠재력은 너무나 크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텔레비전의 위력을 고려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텔레비전 전파의 침입은 곧 송신국의 문화적 침입을 의미하며, 상품광고방송의 침입은 해당 상품의 소비를 더욱 부추겨 한 국가의 경제적 토대마저 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파침입의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일본의 텔레비전 전파가 우리의 안방에까지 스며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직접위성방송이 일본열도를 넘어 한반도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어오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전파침입 문제를 넘어 문화적·경제적 침투의 문제를 함축하는 것이다.

본 조사는 일본의 직접위성방송이 갖는 전파침입의 문제를 연구하여 한국의 시청자들이 과연 일본 직접위성방송을 얼마나, 어떻게 시청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체적인 질문지 조사를 통해 국내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수신행태 조사(전국조사와 서울·부산지역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전파 침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조사연구는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전파침입에 대한 일반국민과 일본방송시청자들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조사의 중점사항은 일본 직접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국내시청자들의 수용행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국내시청자들의 일본 직접위성방송에 대한 시청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전국조사와 함께 서울·부산지역의 조사를 병행했다. 전국 조사는 20세 이상의 일반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1,500명을, 서울·부산지역 조사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방송 수신설비 소유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서울 400명, 부산 300명을 표집했다. 특정 지역으로 서울지역과 부산지역을 선정한 것은 이 도시들이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영향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제1, 제2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우선 전국조사는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1990년도 인구추계자료 「인구동태 신고결과 및 장래 인구추이」(1989. 10)를 사용하여 1989년 현재 전국의 6개 특별시, 직할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8개 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조사의 성격, 예산 범위 및 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1,500명으로 정하였다.

표집은 다단계 확률표집으로 하되, 마지막 단계에서의 표집은 할당표집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1단계에서 전국을 24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이 세분된 지역에서 동(읍·면)을 선정, 여기에서 통·반(리)을 표집하였다. 조사는 전국에서 1990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방식은 면접자가 직접 응답자에게 문항내용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면접조사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기기입 방식도 병행하였다.

서울·부산지역 조사는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위성방송수신설비를 갖춘 가정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서울 400명, 부산 300명으로 하였다. 표집은 우선 서울시와 부산시의 구를 군집표집하여 서울시의 8개 구와 부산시의 7개 구를 선택하였고, 이 구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1990년 8월 16일에서 8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방식은 전국조사와 같다. 이와 같은 조사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질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는데, 회수 후 부실한 질문지는 재조사하였고, 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동

일한 속성을 가진 조사가구 내의 다른 사람을 조사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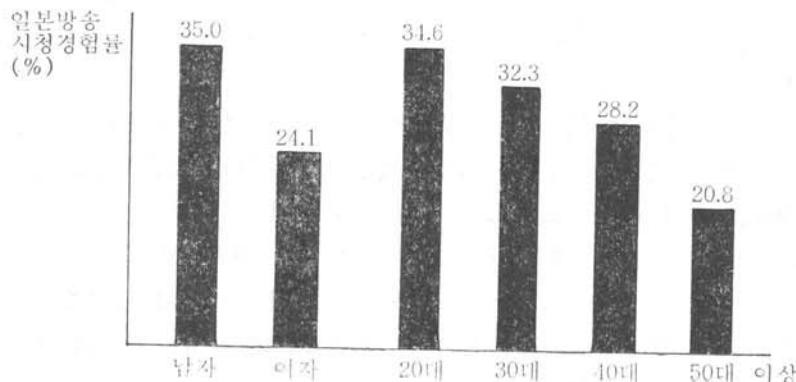
II. 일반국민의 일본 직접위성방송 수용실태와 인식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일본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일본방송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표 2-1>에서와 같이 일본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70.3%, 일본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9.5%로 나타나 지상파 일본방송이 한국에 도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방송의 시청경험여부를 성별로 나누어 파악해 본 결과, <그림 2-1>에서와 같이 남성(35.0%)이 여성(24.1%)보다 일본방송 시청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방송의 시청경험 여부를 연령별로 나누어 파악해 본 결과 20대(34.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32.3%),

<표 2-1> 일본방송의 시청경험

응답항목	%	번호
일본방송 시청경험이 없다	70.3	(1073)
일본방송 시청경험이 있다	29.5	(450)
무응답	0.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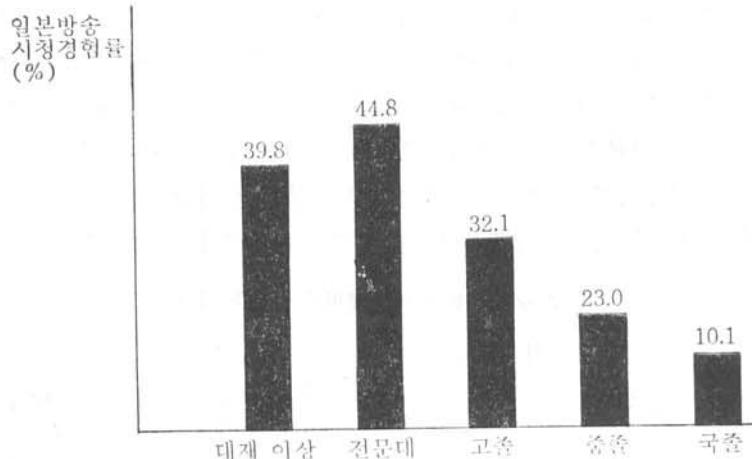
<그림 2-1> 성별·연령별 일본방송 시청경험률

40대(28.2%)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시청경험률이 점차 낮아져 50대 이상(20.8%)은 적은 수만이 일본방송 시청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일수록 일본방송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일본방송을 시청한 경험률을 교육수준별로 나누어 파악해 본 결과, <그림 2-2>에서와 같이 국졸이하(10.1%)가 가장 낮은 시청률을 보이고, 그 다음이 중졸(23.0%), 고졸(32.1%), 대졸(39.8%)로 이어지며 전문대졸 이상(44.8%)이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일본방송 시청경험률은 부산을 포함하는 경남지역(44.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지역(35.3%)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반면에 전라도 지역(19.9%)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으로 부산지역이 일본의 지상파 방송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 시청자 중에서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서울·부산 등 대도시로 갈수록 일본방송에 대한 접촉경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본방송에 접촉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방송을 시청한 적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림 2-2> 학력별 일본방송 시청경험률

〈표 2-2〉 일본방송의 시청방식

응답항목	%	빈도
유선방송을 통해서	8.9	(135)
비디오를 통해서	8.2	(125)
직접위성방송을 통해서	6.8	(105)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4.0	(61)
비해당(무응답포함)	72.1	(1101)

시청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해보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방송의 접촉방식은 "유선방송을 통해서"(8.9%)가 가장 많았고, 두번째는 "비디오를 통해서"(8.2%)이며 그 다음으로 "직접위성방송을 통해서"(6.8%)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일본방송의 접촉이 지상파 방송이나 위성방송의 적접적인 이용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패키지계 미디어인 유선방송이나 비디오의 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들어 널리 보급되어 있는 비디오나 유선방송이 일본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접촉매체로서 기능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적으로 일본방송 수신설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귀댁에는 일본의 직접위성방송 수신설비를 갖추고 있습니까?"를 질문해보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표 2-3〉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 일본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한 가정의 수는 개인용과 공청용을 합했을 때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개인용(1.1%)이 공청용(0.7%)보다는 많이 보급되어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대다수인 96.3%가 "일본방송수신설비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적으로 20만에 가까운 가구가 일본 직접 위성방송용 수신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그래서 위성 방송 수신설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구입할 계획 여부를 알아 보고자 "현재 일본방송 수신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표 2-3〉 일본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한 가정수

응답항목	%	빈도
일본방송 수신설비 없다	96.3	(1471)
개인용 파라볼라 안테나	1.1	(17)
공청용 파라볼라 안테나	0.7	(11)
무응답	1.8	(28)

〈표 2-4〉 일본방송 수신설비의 설치희망정도

응답항목	%	빈도
그럴 생각이 없다	62.8	(959)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 설치하겠다	31.9	(481)
가능하면 빨리 설치하겠다	2.9	(28)
무응답	2.9	(43)

면, 이후에 갖추고 싶으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그 결과 〈표 2-4〉에서와 같이 본 적접위성방송 수신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수신설비의 설치희망정도는 "그럴 생각이 없다"(62.8%)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 설치하겠다"(31.9%)가 차지했으며, "가능하면 빨리 설치하겠다"(2.9%)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비록 전체의 2/3 가까이가 설치를 희망하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 1/3이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일본방송 시청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어서 일본방송의 시청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일본방송을 시청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해보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는 일본방송 수신을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규제가 필요하다"(69.6%)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27.8%)는 비교적 소수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일본방송의 시청규제에 대한 견해

응답항목	%	빈도
규제가 필요하다	69.6	(1063)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	27.8	(424)
무응답	2.6	(4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본 적접위성방송 시청을 위한 수신설비는 조사 가구의 1.8%가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민의 30% 가까이가 일본방송 시청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당수가 일본방송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젊을수록 빈도가 높게 나타나, 세대가 바뀌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본방송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III. 서울·부산지역 일본 직접위성방송 수신자의 수용실태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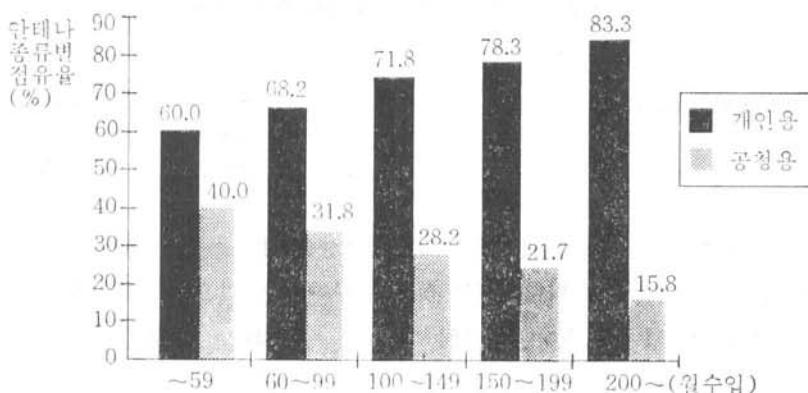
1.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수신설비 보급 실태

서울·부산지역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신설비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어떤 종류의 수신설비를 갖추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해보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표 3-1>에서와 같이 “개인용 파라볼라 안테나를 갖추고 있다”(76.7%)가 지배적이었으며, “공청용 파라볼라 안테나를 갖추고 있다”(23.0%)는 제한적으로 나타나, 대부분 개인용 수신설비를 갖추고 일본 직접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을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파악해 보았을 때, <그림 3-1>

<표 3-1> 일본 직접위성방송 수신설비의 유형

응답항목	%	빈도
개인용 파라볼라 안테나	76.7	(537)
공청용 파라볼라 안테나	23.0	(161)



<그림 3-1> 가구 수입에 따른 일본 직접위성방송 수신설비의 유형

에서와 같이 수입이 많을수록 개인용 파라볼라 안테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이 적을수록 공청용 파라볼라 안테나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직접위성방송이 공청용으로 보급될 경우, 경제적 여유가 적은 집단에게까지 널리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서울·부산지역 일본 방송수신자들이 수신설비를 갖추는 데 든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의 댁에는 수신설비를 갖추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라고 질문해 보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표 3-2>에서와 같이 50만원에서 79만원 사이(32.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80만원에서 99만원 사이(32.8%)가 그 다음이며, 100만원 이상(11.7%)은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부산지역 일본 방송수신자들이 수신설비를 갖춘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의 댁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일본방송 수신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이 결과, <표 3-3>에서와 같이 “일본어 공부를 위해서”(30.9%)가 가장

<표 3-2>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수신설비 설치비용

응답항목	%	빈도
50만원 미만	16.2	(98)
50만원~79만원	39.3	(238)
80만원~99만원	32.8	(199)
100만원 이상	11.7	(71)

<표 3-3>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수신설비 설치동기

응답항목	%	빈도
일본어 공부를 위해서	30.9	(216)
세계 각국의 방송을 시청하고 싶어서	15.6	(109)
오락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	10.7	(75)
일본방송을 시청하고 싶어서	9.7	(68)
주위의 퀸유, 호기심 때문에	9.3	(65)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	8.0	(56)
한국방송 안할 때 시청하기 위해서	5.3	(37)
교양방송을 시청하려고	2.6	(18)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서	1.4	(10)
기타	6.6	(46)

높고, 그 다음이 “세계 각국의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30.9%)이며, 세째는 “오락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10.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9.7%), “주위의 권유와 호기심으로”(9.3%), “최신정보를 얻기 위하여”(8.3%)가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에서 못 보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또는 “한국방송을 하지 않을 때 보기 위해서” 수신 설비를 갖추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5.3%인 37명에 불과했다. 이것은 일본 직접 위성방송의 설치 목적이 일본어 학습 등 적극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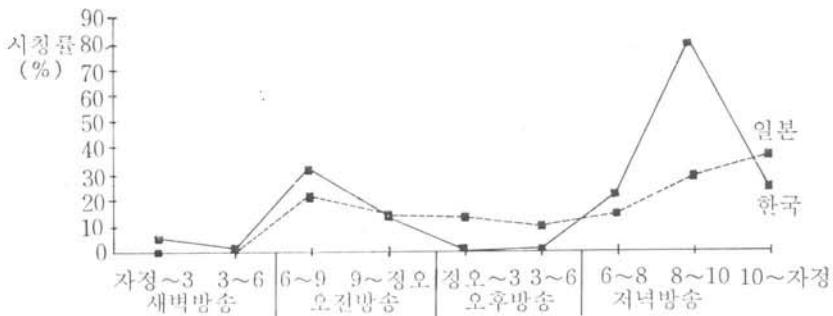
2.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시청 형태

서울·부산지역의 일본방송 수신자 중 가정 내에서 가장 즐겨 시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 댁에서 일본방송을 가장 즐겨 시청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보았다. 이 결과는 <표 3-4>에서와 같이 가장인 아버지(65.9%)가 가장 즐기고, 그 다음이 자녀(16.1%), 그리고 어머니(15.9%)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 위성방송을 접하기 위해서 비싼 설비가 필요한 만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였고, 이러한 목적이 주로 가장인 아버지의 의사에 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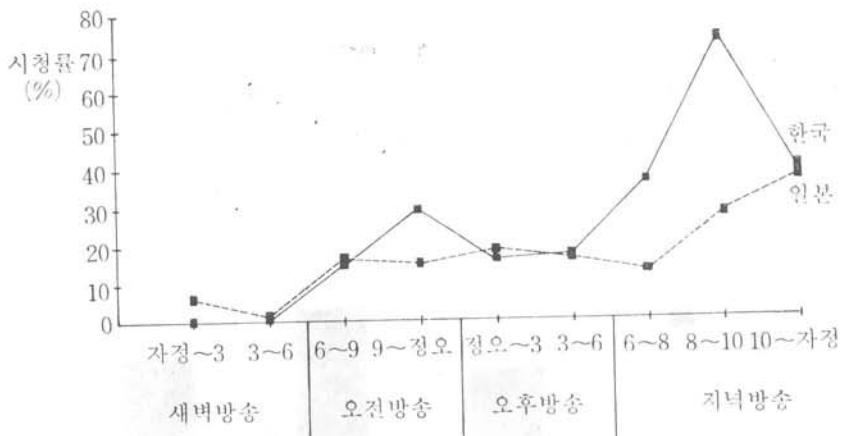
사람들이 주로 어느 시간대에 일본 직접위성방송을 시청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느 시간대에 일본방송을 보십니까?”라고 질문을 해보았다. 이 결과를 한국방송과 일본방송로 나누고, 시청시간대를 평일과 주말·휴일의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3-2>와 같다. 한국방송과 일본방송의 시청시간대를 비교해본 결과, 평일의 경우 위의 <그림 3-2>에서와 같이 한국방송은 오전방송과 저녁방송을 하는 관계로 이

<표 3-4> 일본 직접위성방송을 가장 즐겨 시청하는 사람

응답항목	%	빈도
아버지	65.9	(461)
자녀	16.1	(113)
어머니	15.9	(111)
기타	1.0	(7)
할아버지, 할머니	0.9	(6)
무응답	0.3	(2)



〈그림 3-2〉 한국방송과 일본방송의 시청시간대 비교 — 평일



〈그림 3-3〉 한국방송과 일본방송의 시청시간대 비교 — 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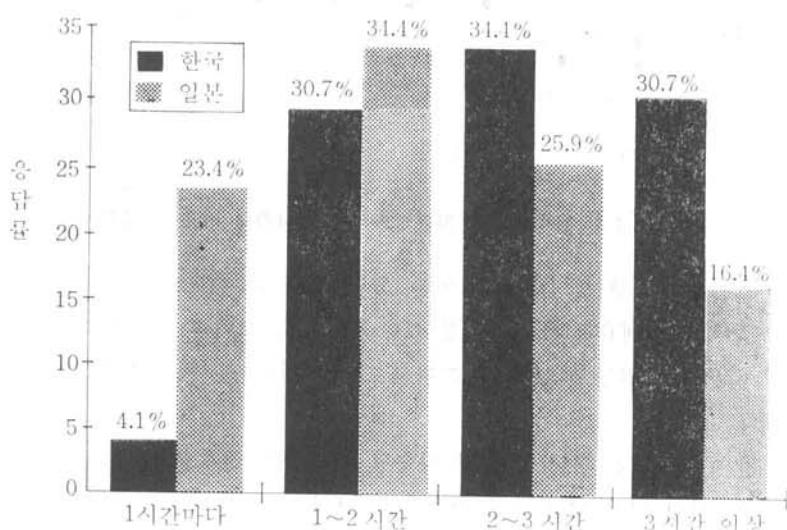
시간대에 집중적인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오후 8시~10시 시간대 (80.1%)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아침 6시~9시 시간대 (34.1%) 그리고 오후 6시~8시 시간대 (22.0%)로 이어진다.

반면 일본방송은 24시간 전일 방송편성을 하는 관계로 시간대별 편차가 한국방송처럼 많지 않고 고른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일본방송의 시청률이 낮보다는 십야에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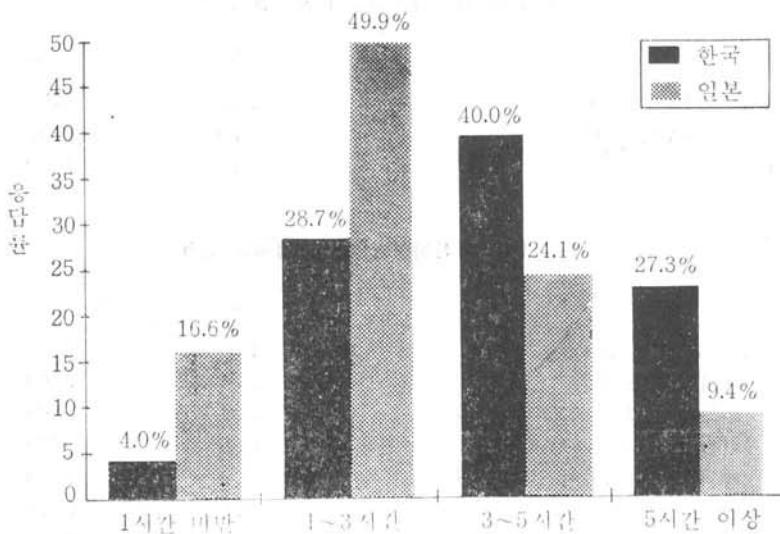
울·부산지역 일본방송 수신자는 낮 동안의 시청욕구보다는 심야의 시청욕구가 더 크며, 이 욕구의 일부를 일본방송을 통해 대안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방송과 일본방송의 주말 시청시간대 분포는 <그림 3-3>에서와 같이 평일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방송이 심야를 제외한 낮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방송의 시청패턴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서울·부산지역의 일본 방송수신자 중 한국방송의 방송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본방송을 고정적으로 시청하는 시청자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독특한 것은 한국방송이 낮방송을 하고 비교적 심야까지 방송을 하는 주말의 낮과 심야시간대에는 한국방송의 시청률이 일본방송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낮과 심야에 대한 한국시청자들의 시청욕구가 주말의 종일편성에 의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본방송의 시청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방송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보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해보았다. 이 결과에 의하면, 평일의 경우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인 경우가 34.3%였고, 3시간 이상은 16.4%였다. 또 주말·휴일의 경우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인 경우가 49.9%였으며, 3시간에서 5시간 미만인 경우가 24.1%였다.



<그림 3-4> 한국방송과 일본방송의 시청량 비교 — 평일



〈그림 3-5〉 한국방송과 일본방송의 시청량 비교 — 주말

한국방송의 시청시간을 묻는 질문의 경우, 평일과 주말·휴일 모두 일본방송보다 시청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방송은 평일인 경우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미만인 경우가 34.4%였으며, 3시간 이상인 경우도 30.7%였다. 그리고 주말·휴일의 경우 3시간에서 5시간 미만인 경우가 40.0%였으며, 5시간 이상의 경우 27.3%였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일본방송의 절대 시청량은 한국방송의 그것보다 적다. 평일의 경우 한국방송의 가장 많은 시청시간은 평균 2~3시간(34.4%)인 반면, 일본방송의 가장 많은 시청시간은 평균 1~2시간(34.3%)이다. 그리고 주말의 경우도 한국방송의 가장 많은 시청시간은 평균 3~5시간(40.0%)인 반면, 일본방송의 가장 많은 시청시간은 평균 1~3시간(49.9%)이다.

한편 주로 보는 직접위성방송의 채널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일본방송의 어느 채널을 보십니까?”라고 질문해 보았다. 이 결과, 〈표 3-5〉에서와 같이 채널 15인 위성 제 1텔리비전(49.9%)의 시청자와 채널 11인 위성 제 2텔리비전(48.0%)의 시청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울·부산 지역 일본방송 수신자들은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2개 채널을 골고루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3-5〉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채널별 선호도

응답항목	%	빈도
위성 제1TV(채널 15)	49.9	(349)
위성 제2TV(채널 11)	48.0	(336)
무응답	2.1	(15)

〈표 3-6〉 일본 직접위성방송을 시청하는 이유

응답항목	%	빈도
최신 뉴스 및 정보를 알기 위해	28.6	(200)
일본어 공부를 위해	27.4	(192)
우리 방송에 없는 프로를 보기 위해	23.4	(164)
우리 방송이 없는 시간에 방송을 보기 위해	12.6	(88)
영어 및 기타 외국어 공부를 위해	3.9	(27)
기타	4.0	(28)
무응답	0.1	(1)

일본 직접위성방송을 시청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항 “귀하는 일본방송을 어떠한 이유로 보십니까?”를 물어보았다. 이 결과, 〈표 3-6〉에서와 같이 “최신 뉴스 및 정보를 얻기 위해서”(28.6%)가 가장 많은 이유였으며, 그 다음이 “일본어 공부를 위해서”(27.4%),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에서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의 시청”(23.4%)과 “우리나라 방송을 하지 않은 시간에 보기 위해서”(12.6%)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수신설비를 갖춘 목적을 묻는 질문의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애초에 수신설비를 갖출 때의 목적은 “일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30.9%)가 가장 많았지만, 실제 시청 이유를 물었을 때는 그 비율이 두번째가 되었다. 그리고 수신설비 설치 목적에서는 “한국방송에서 보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한국 방송이 없는 시간에 방송을 시청하려고” 수신설비를 갖춘 가구가 5.3%에 불과 했지만, 실제 시청이유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시청하는 사람의 수가 36.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일본 직접위성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할 때는 일본어 학습 등의 적극적 동기로 설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는 이러한 적극적 동기는 약해지고 한국 방송에 대한 대안적 매체로써 이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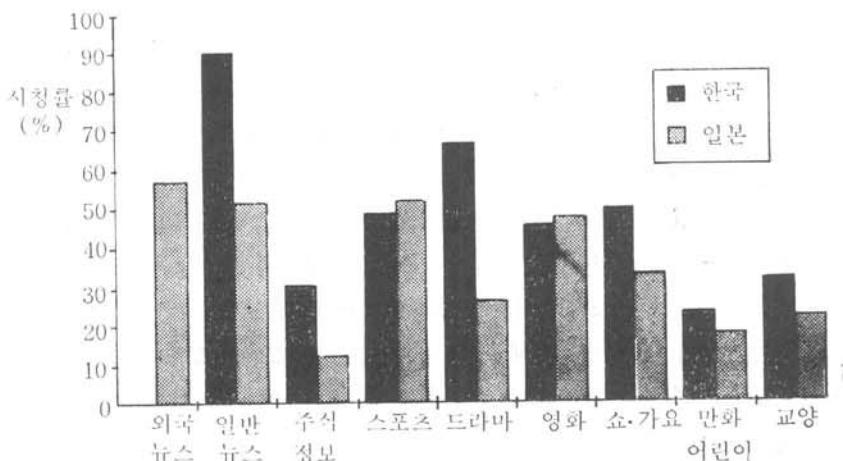
〈표 3-7〉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이해정도

응답항목	%	빈도
대부분의 내용 이해한다	34.7	(243)
일부분만을 이해한다	42.4	(297)
화면을 보고 즐긴다	18.3	(128)
그냥 켜두고 가끔 본다	3.9	(27)
무응답	0.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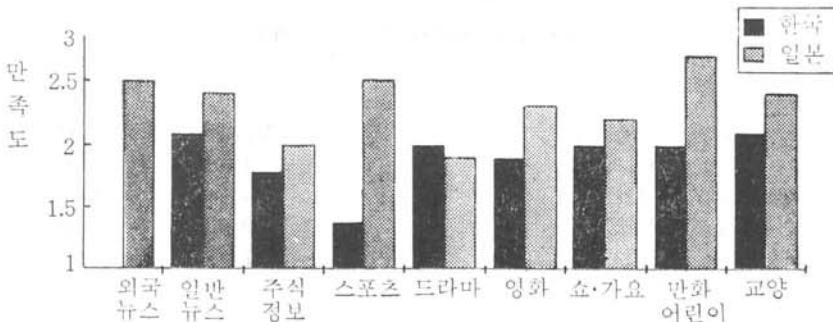
일본방송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보십니까?"라고 물어 보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표 3-7〉에서와 같이 "일부분만을 이해하면서 보는 경우"(42.4%)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을 이해하면서 본다"(34.7%)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부산지역 일본방송 수신자들의 77.1%가 일본방송 내용을 적어도 일부분은 이해하면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냥 켜놓고 화면만 본다고 응답한 사람은 3.9%인 27명이었다.

3.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프로그램별 시청률과 만족도

서울·부산지역 수신자들의 일본 직접위성방송과 한국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과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시청률과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시청률을 알아보면 〈그림 3-6〉에서와 같이 한국방송의 시청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방송이 일본방송보다 시청률



〈그림 3-6〉 한국방송 및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프로그램별 시청여부



〈그림 3-7〉 한국방송 및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프로그램별 만족도

이 높기는 하지만 영화와 스포츠 등에서는 일본방송의 시청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경우, 영화와 스포츠 중계가 중요 편성 프로그램으로 위치하고 이것을 한국방송에서는 쉽게 접촉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방송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한국방송에 대한 만족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가지의 프로그램 유형 중 드라마장르를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일본방송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림 3-7〉에서와 같이 일본 직접위성방송에서 방송하고 있는 외국 방송국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2.5로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뉴스 및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일본 프로그램(2.4)이 한국 프로그램(2.1)보다 높다.

주식 및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일본 프로그램(2.0)이 한국 프로그램(1.8)보다 높으며,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일본 프로그램(2.5)이 한국 프로그램(1.4)보다 높다. 그러나 드라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일본 프로그램(1.9)이 한국 프로그램(2.0)보다 낮다. 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일본 프로그램(2.3)이 한국 프로그램(1.9)보다 높고, 쇼 및 가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일본 프로그램(2.2)이 한국프로그램(2.0)보다 높다. 한편 만화 및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일본 프로그램(2.7)이 한국 프로그램(2.0)보다 높으며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일본 프로그램(2.4)이 한국 프로그램(2.1)보다 높다.

이 상에서와 같이 서울·부산의 일본방송수신자들은 전체적으로 한국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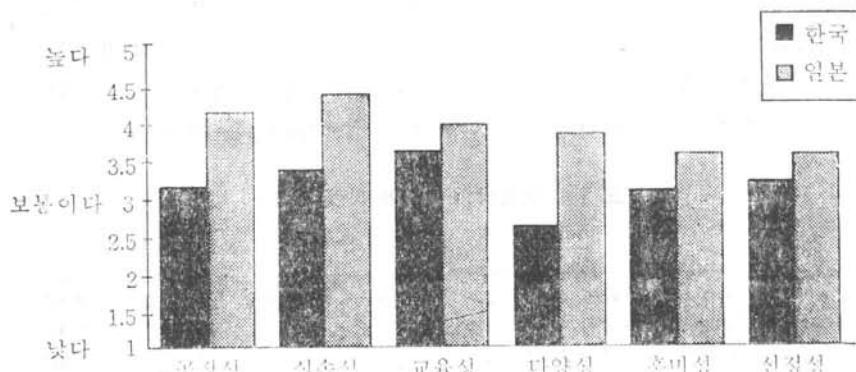
그램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일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드라마의 경우에는 한국 드라마에 더 만족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상의 문제로 일본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프로그램내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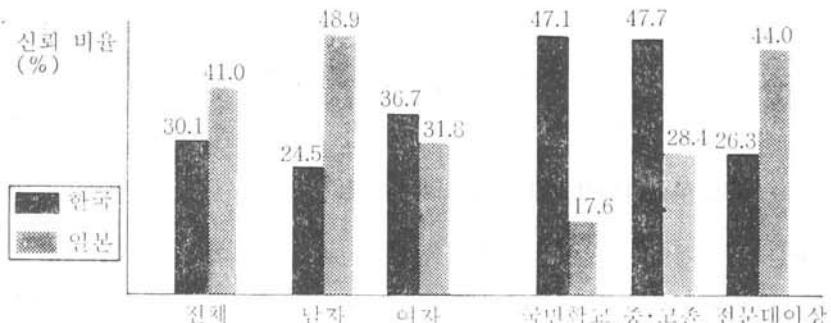
서울·부산지역 수용자들의 일본 직접위성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각 프로그램당 2가지 요소를 추출하여 이 요소에 대한 평가점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3-8>에서와 같이 일본 프로그램이 모든 요소에서 한국 프로그램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및 정보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 일본방송의 공정성 점수는 3.6점이며 신속성 점수는 3.8점인데 반해, 한국방송의 경우 각각 2.8점과 3.0점을 기록하고 있다. 교육 및 교양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 일본방송의 교육성 점수는 3.5점이며 다양성 점수는 3.4점인데 반해, 한국방송의 경우 각각 3.2점과 2.4점을 기록하고 있다. 오락 및 쇼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 일본방송의 흥미성 점수는 3.2점이며 선정성 점수는 3.2점인데 반해, 한국방송의 경우 각각 3.2점과 2.4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한국뉴스와 일본뉴스의 프로그램 내용이 상충될 때 어느 쪽을 더 신뢰하겠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만약 같은 사실을 두고 한국방송과 일본방송이 다르게 보도한다면 어떤 매체를 믿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그림 3-8> 한국방송 및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그림 3-9〉 한국방송과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보도기사 신뢰도

이 결과에 따르면 〈그림 3-9〉에서와 같이 일본방송이 신뢰도가 높다고 응답한 사람이(41.0%), 한국방송이 신뢰도가 높다고 응답한 사람(30.1%)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부산 일본 위성방송 수신자들의 한국방송에도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일본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학력별로 나누어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일본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고학력 엘리트일수록 일본방송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유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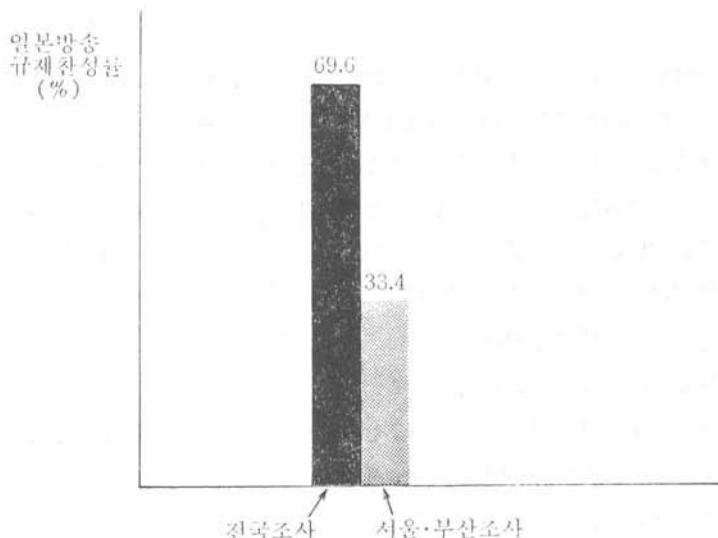
일본방송의 유입에 대한 시청자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일본방송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았다. 이 결과 〈표 3-8〉에서와 같이 “한국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쁠것이 없다”(60.0%)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으며, 그 다음이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해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12.9%) “한국문화 발전

〈표 3-8〉 일본방송 유입에 대한 시각

응답 항목	%	빈도
한국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쁠것이 없다	60.0	(420)
일본의 문화침략의 일환이다	14.3	(100)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해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12.9	(90)
한국문화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	11.3	(79)
무응답	1.6	(11)

〈표 3-9〉 일본방송의 규제에 대한 견해

응답항목	%	빈도
규제해야 한다	33.4	(234)
자유롭게 시청하도록 해야한다	65.4	(458)
무응답	1.1	(8)



〈그림 3-10〉 일본방송 시청규제 찬성을

에 도움을 준다”(11.3%)와 “일본 문화침략의 일환이다”(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방송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나쁠 것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방송의 규제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일본방송의 시청규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일본방송의 시청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9〉에서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33.4%)가 비교적 낮은데 반해, “자유롭게 시청하도록 해야 한다”(65.4%)가 지배적인 의견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본방송의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전국조사의 경우 69.6%가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반응했던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그림 3-10).

이러한 결과는 일반국민은 일본방송규제에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실제적

〈표 3-10〉 일본방송의 규제 방식에 대한 견해

응답항목	%	빈도
정부의 규제보다는 범국민적 시청자 계몽운동이 더욱 중요하다	42.5	(110)
일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규제해야 한다	37.1	(96)
일본방송의 시청과 수신설비의 생산·유통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10.0	(26)
전파방해를 해야한다	5.4	(14)
무응답	5.0	(13)

으로 일본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규제에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규제방식을 묻기 위해 “귀하는 일본방송을 어떻게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보았다. 이 결과 〈표 3-10〉에서와 같이 “범국민적 시청자 계몽운동이 더욱 중요하다”(42.5%)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일본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프로그램 내용을 규제해야 한다”(37.1%) 그리고 “일본방송의 시청과 수신설비의 생산·유통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10.0%)는 의견도 많이 나왔고 심지어 “전파방해를 해야 한다”(5.4%)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서울·부산지역의 일본방송 수신자들이 전파방해와 같은 현실성 없는 방식보다는 시민의 자율에 맡기는 시청자 계몽운동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6. 일본 직접위성방송의 유입에 대한 대응 방안

일본방송의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방송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귀하는 국내 텔레비전 방송의 종일방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해 보았다. 이 결과 〈표 3-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7.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데 반해, 45.1%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민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견해가 66.7%인데 반해,

〈표 3-11〉 종일방송 및 민영 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 빈도)

응답항목	종일방송	민영방송
필요하다	37.1(260)	66.7(467)
필요하지 않다	45.1(316)	21.0(147)
잘 모르겠다	14.6(102)	11.7(82)
무응답	3.1(22)	0.6(4)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는 21.0%로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민영방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직접위성방송용 위성발사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직접위성방송용 위성 발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았다. 이 결과 <표 3-12>에서와 같이 “가능하면 빨리 위성방송을 해야한다”(56.9%)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위성방송은 필요하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38.0%)였고, “불필요하다”(3.9%)는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과반수 이상이 조속한 위성 발사를 지지하고 있지만, 신중론을 펴는 응답자도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을 점하고 있다.

<표 3-12> 우리나라의 직접위성 TV방송용 위성발사에 대한 견해

응답항목	%	빈도
가능하면 빨리 위성방송을 해야 한다	56.9	(398)
위성방송은 필요하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38.0	(266)
위성방송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3.9	(27)
무응답	1.3	(9)

일본방송 프로그램과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및 광고에 적용되는 윤리 심의 기준에 대한 시청자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일본방송의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및 광고에 적용되는 윤리 심의 기준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았다. 이 결과 <표 3-13>에서와 같이 “심의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53.7%)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심의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16.3%)와 “심의기준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15.3%)는 의견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표 3-13> 한국방송 규제에 대한 견해

응답항목	%	빈도
보다 자유롭게 제작하도록 윤리 심의 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	53.7	(376)
윤리 심의 기준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16.3	(114)
윤리 심의 기준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15.3	(107)
잘 모르겠다	14.0	(98)
무응답	0.7	(5)

IV. 맷 음 말

1. 연구결과 요약

전국 조사결과 일본 적접위성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신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개인용과 공청용을 합쳐서 1.8%에 이르고 있어, 전국적으로 20만 가구 가까이 수신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수신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 중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 일본 적접위성방송의 수신설비를 갖추고자 생각한 사람은 응답자의 3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신설비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전국민의 1/3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서 앞으로 일본 적접위성방송의 잠재적 시청인구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방송의 시청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6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국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국조사 응답자들의 일본방송 시청경험이 많고 수신설비 또한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대다수가 일본방송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조사와는 별도로 일본방송 시청자들이 어떻게 일본방송을 수신하며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부산지역의 일본방송 수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서울·부산지역 일본방송 시청자들은 대체로 개인용 파라볼라 안테나를 설치하고(76.7%) 공청용 안테나는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공청용안테나의 소유자는 개인용 안테나의 소유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할 때, 공청용 안테나의 보급에 따라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까지도 저렴한 공청용 안테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일본방송의 시청이 보다 폭넓게 확산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지역의 일본방송시청자들은 일본위성방송의 수신설비를 설치 이유로 첫째, “일본어 공부를 위해서”, 둘째, “세계 각국의 방송과 뉴스를 보기 위해서” 등을 꼽았다. 그러나 설치 이후 일본방송을 실질적으로 시청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이들 설치목적과 함께 “우리방송에 없는 프로그램

을 보기 위해서”, “우리방송이 방송을 안하는 시간에 보기 위하여”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어 학습 등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일본방송수신설비를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청할 때는 한국방송을 안하는 시간에 보기 위해서나 한국방송에 없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서 등 한국방송에 대한 대안적 매체로서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들은 전체적으로 일본방송이 한국방송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뉴스 및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일본방송이 더 공정하고 신속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 및 교양프로그램의 경우도 일본방송이 더 교육적이며 다양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오락 및 쇼 프로그램의 경우는 일본방송이 더 흥미있으나 너무 선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방송 시청자들이 한국방송에 대해서 신뢰감과 친근감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일본방송을 더욱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결국 이는 서울·부산지역의 일본방송시청자들이 한국방송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방송에 대한 좋은 평가는 방송 신뢰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즉 서울·부산지역의 일본 시청자들 중에 일본방송을 신뢰하는 집단은 4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방송을 신뢰하는 집단은 30.1%를 차지함으로서 일본방송을 신뢰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서울·부산지역의 일본방송 시청자들은 일본방송의 유입이 “한국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0.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일본의 문화침략이다”(14.3%), “미풍양속을 해친다”(12.9%), “문화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11.3%)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응답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방송을 규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시청하도록 해야한다”라고 언급한 사람이 전체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부산지역 일본방송 수신자의 인식은 전체 일반국민 조사의 결과와 상이하다. 즉 서울·부산지역 일본방송 수신자들은 일본방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체 일반국민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부산지역의 일본방송 시청자들은 “일본방송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영방송이 필요하다”(66.7%)고 응답한 반면, 종일방송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45.1%)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의 방송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자유롭게 제작하도록 윤리 심의 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53.7%)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방송 시청자들을 한국방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며, 일본방송을 한국방송에 대한 대안적 매체로서 인식하여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시청자들의 일본방송시청욕구는 사실상 한국방송이 이를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가능성 있는 새로운 방송채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방송규제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전파침입에 대한 대응

앞의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일본방송은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방송의 전파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파침입을 규제하는 국제법만으로는 부족함이 많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국제법적 대응이 실효성과 강제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파침입의 문제는 국내의 사회·문화적 대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파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은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시청자 운동이다. 일본방송에 대한 시청거부운동을 벌여,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파고 들고 있는 일본방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은 한국방송이 일본방송보다 좋은 질의 방송을 만들도록 일본방송과의 시청자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다. 즉 한국방송은 국제법적 대응이나 시청자운동 등의 방송외적 대응에 힘입어 외래방송으로부터 시청자를 강제적으로 확보해내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수준을 제고해서 방송의 질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계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KBS와 MBC로 과잉집중화되었던 방송용프로그램 생산체계를 다변화해야 하며, 프로그램제작을 위한 독립프로덕션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이 미국의 헐리우드로 진출해서 뉴미디어 시대에 부족하기 쉬운 방송용 소프트웨어 생산의 토대를 갖추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하겠다.

더불어 각 방송국간에 동일한 편성을 함으로써 채널의 특성화를 이루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각방송국의 채널특성화를 꾀해야 하며 편성의 다양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청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심야방송, 낮방송 등의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채널, 자율경쟁 시대에 한국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맞물려 우리방송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